

2020 ISSUE REPORT

코로나19의 수출기업 영향 조사

2020.8

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

 Korea Eximbank
WE FINANCE GLOBAL KOREA

- 목적 : '코로나19 등의 수출 기업 영향' 관련 설문조사
- 설문 대상 : 수출 기업 455개社 (한국수출입은행의 의뢰로, (주)칸타코리아에서 설문조사 실시)
 - 기계류(129개社), 자동차(95개社), 전기전자(82개社) 등 총 13개 업종
- 설문 기간 : 2020. 7. 6 ~ 2020. 7. 10*
 - * 1차 설문 : 2020.4.1 ~ 2020.4.10

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영향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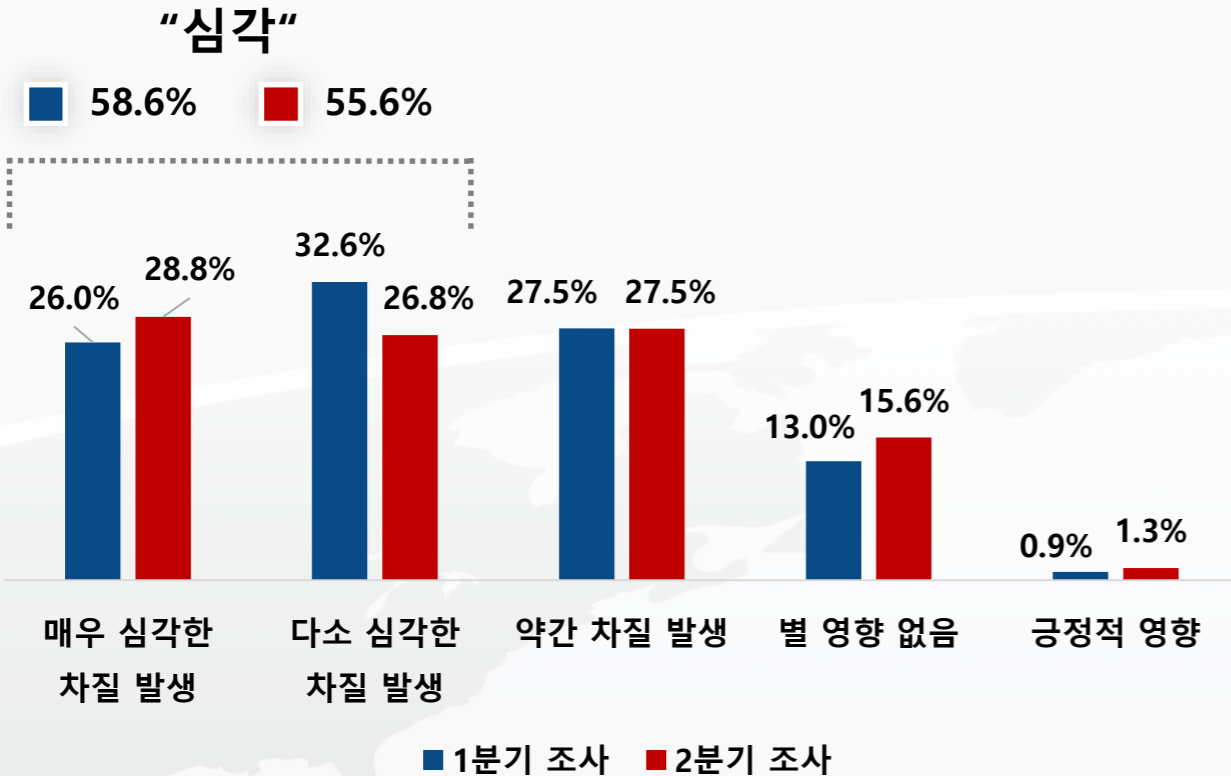
■ 과반 이상(55.6%)이 “수출에 심각한 수준의 차질 발생” 응답

- 각국의 점진적 경제 재개 등에도 불구하고, 대외 수요 위축 등에 따라 코로나19 악영향은 1분기 대비 소폭 완화에 그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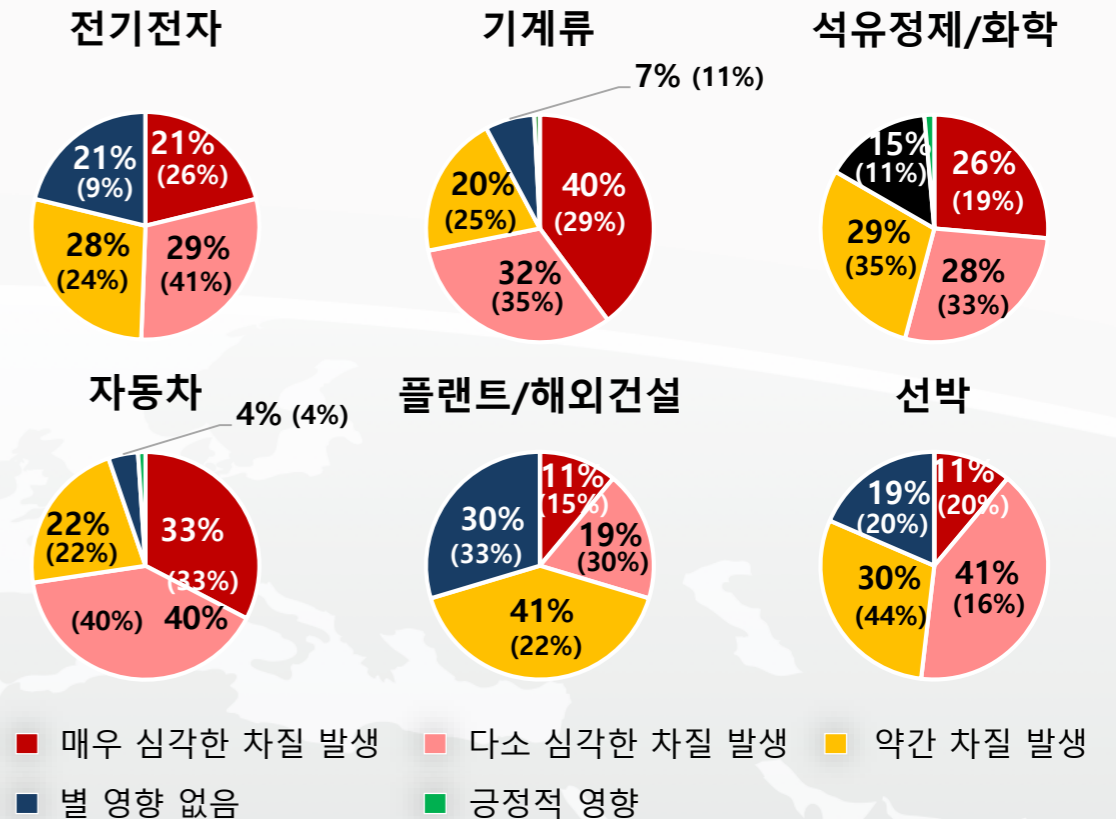
* “코로나19로 인해 수출에 차질 발생” 응답률(전산업 평균, %) : (1분기) 86.1 → (2분기) 83.1

- “차질 발생” 응답 비중은 자동차(95%→94%), 선박(80%→81%) 등에서 1분기 수준으로 유지되는 한편, 석유정제/화학(87%→83%) · 전기전자(92%→79%) 등에서는 1분기 대비 감소, 기계류(88%→92%) · 플랜트/해외건설(67%→70%) 등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
코로나19 수출 영향



코로나19 산업별 수출 영향 (1분기 수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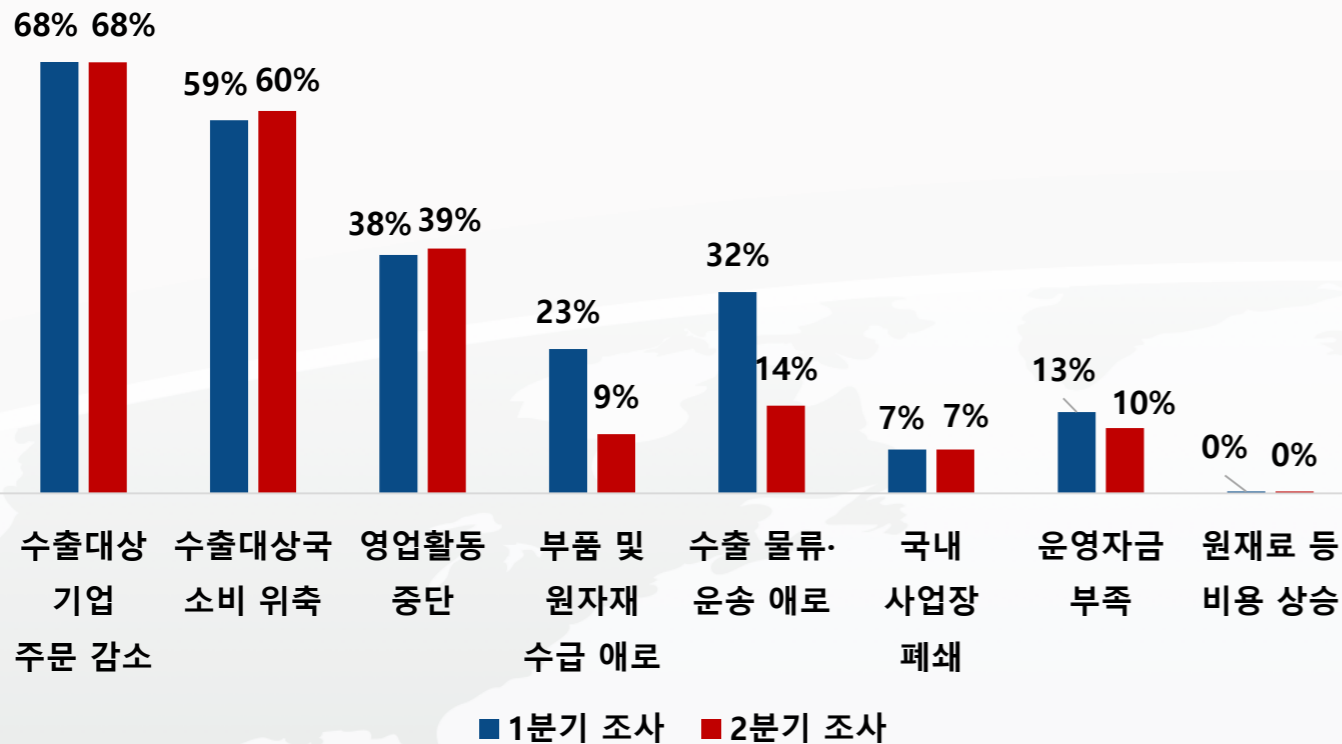


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차질 원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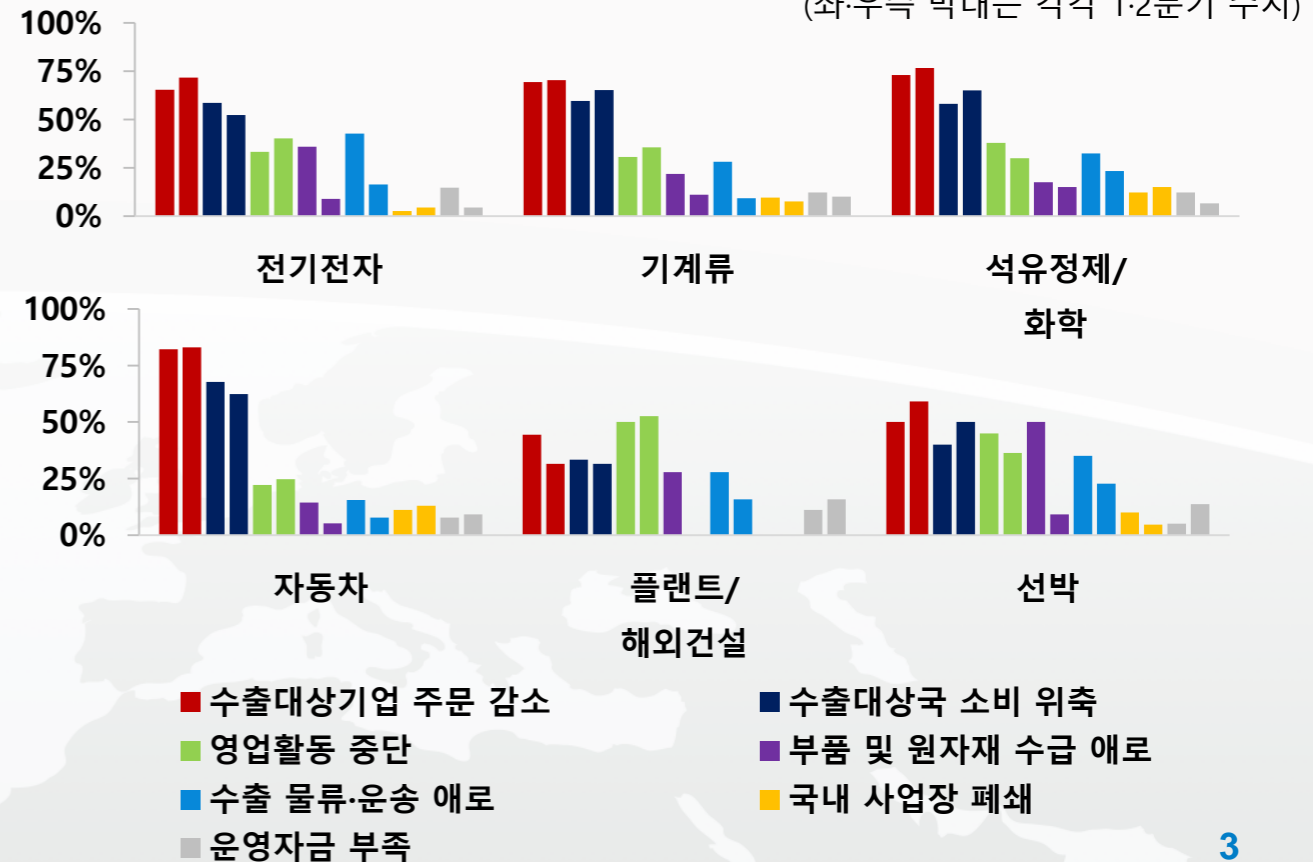
■ “수출대상 기업 주문(B2B 수출)”, “수출대상국 소비(B2C 수출)” 부진 지속

- 산업 전반적으로 “부품·원자재 수급 애로”(22.8%→9.3%)· “수출 물류·운송 애로”(31.7%→13.8%) 응답은 중국 경제 재개, 항공화물 공급 증가 등으로 1분기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
- 기계류·석유정제/화학·선박 등에서는 수출대상국 소비 위축 악영향이 확대되는 한편, 전기전자·자동차·플랜트/해외건설 등에서는 영업활동 중단 영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
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차질 원인 (복수 응답)



산업별 수출 차질 원인 (복수 응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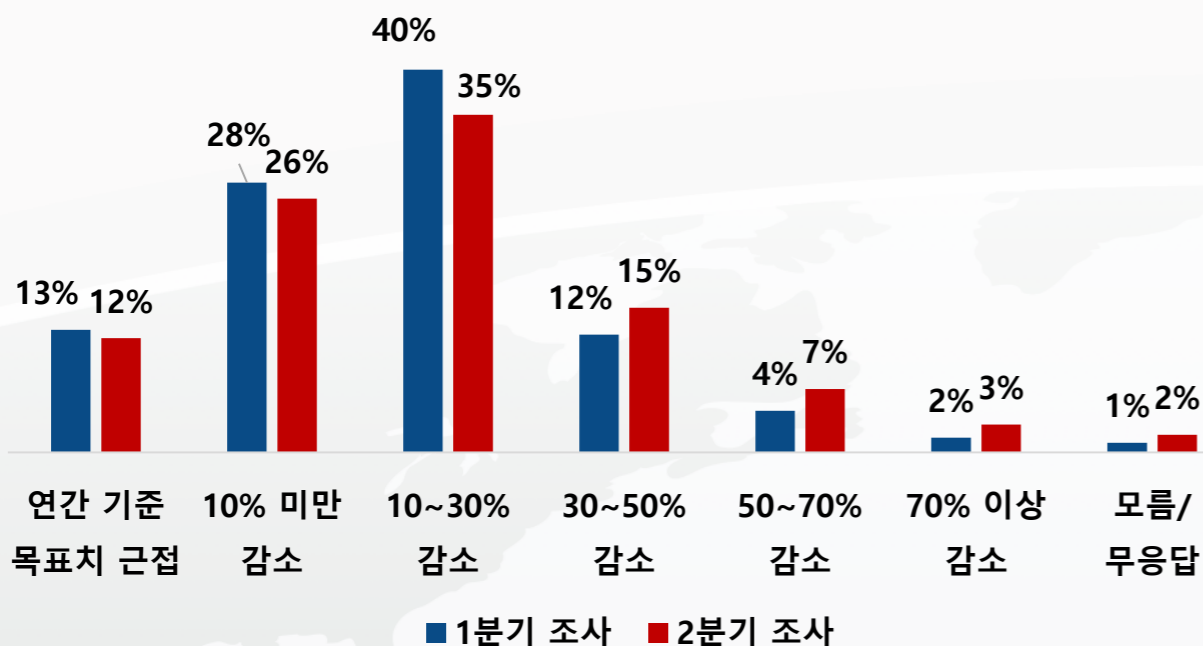


코로나19로 인한 수출액 예상 감소 규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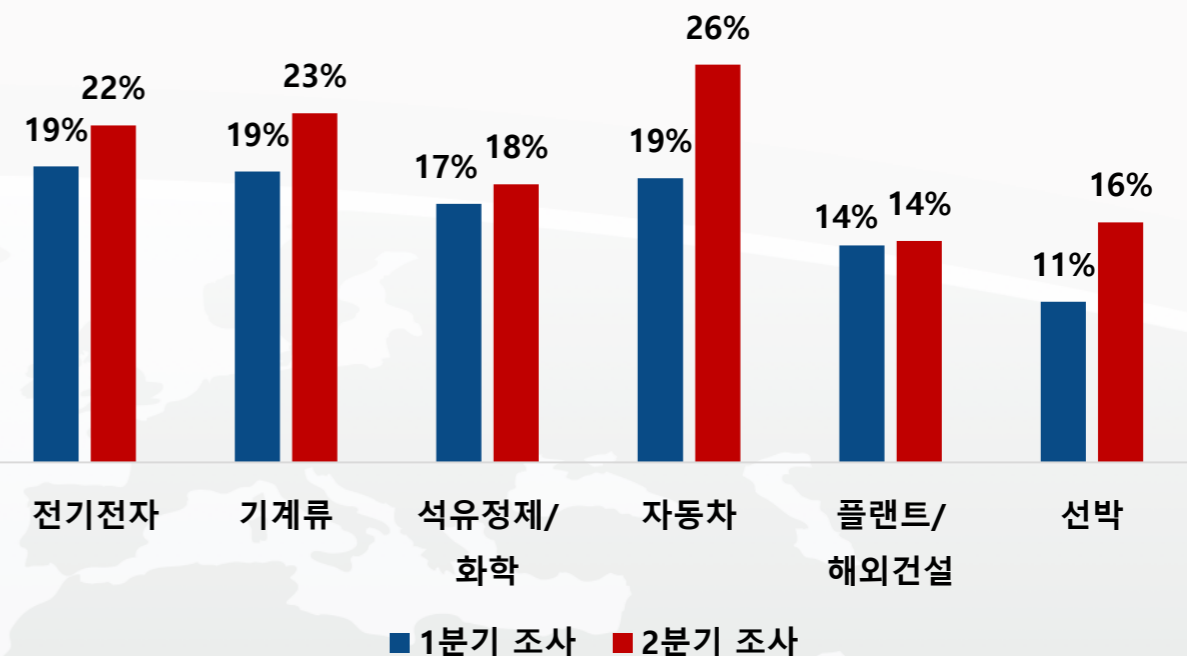
■ 수출기업, 연초 목표치 대비 연간 수출액 20.8% 감소 전망

- 여전히 과반 이상이(59.8%) “연간 수출액, 연초 목표 대비 10% 이상 감소” 응답, 산업 전반적인 수출액 증가율 전망치는 대외수요 위축 등으로 1분기 대비 2.7%p 하락
* 연초 목표 대비 연간 수출액 증가율 전망(전산업 평균, %) : (1분기) $\Delta 18.1 \rightarrow$ (2분기) $\Delta 20.8$
- 수출액 증가율 전망치는 자동차($\Delta 26.0\%$), 기계류($\Delta 22.8\%$), 전기전자($\Delta 22.0\%$) 순으로 낮게 나타남
- 석유정제/화학·플랜트/해외건설 등에서는 연간 수출액 전망이 1분기와 큰 차이가 없는 반면, 자동차($\Delta 18.6\% \rightarrow \Delta 26.0\%$)·선박($\Delta 10.5\% \rightarrow \Delta 15.7\%$) 등에서는 1분기 대비 악화

연초 목표 대비 수출액 예상 감소율



산업별 연초 목표 대비 수출액 예상 감소율



코로나19 피해 대응 자구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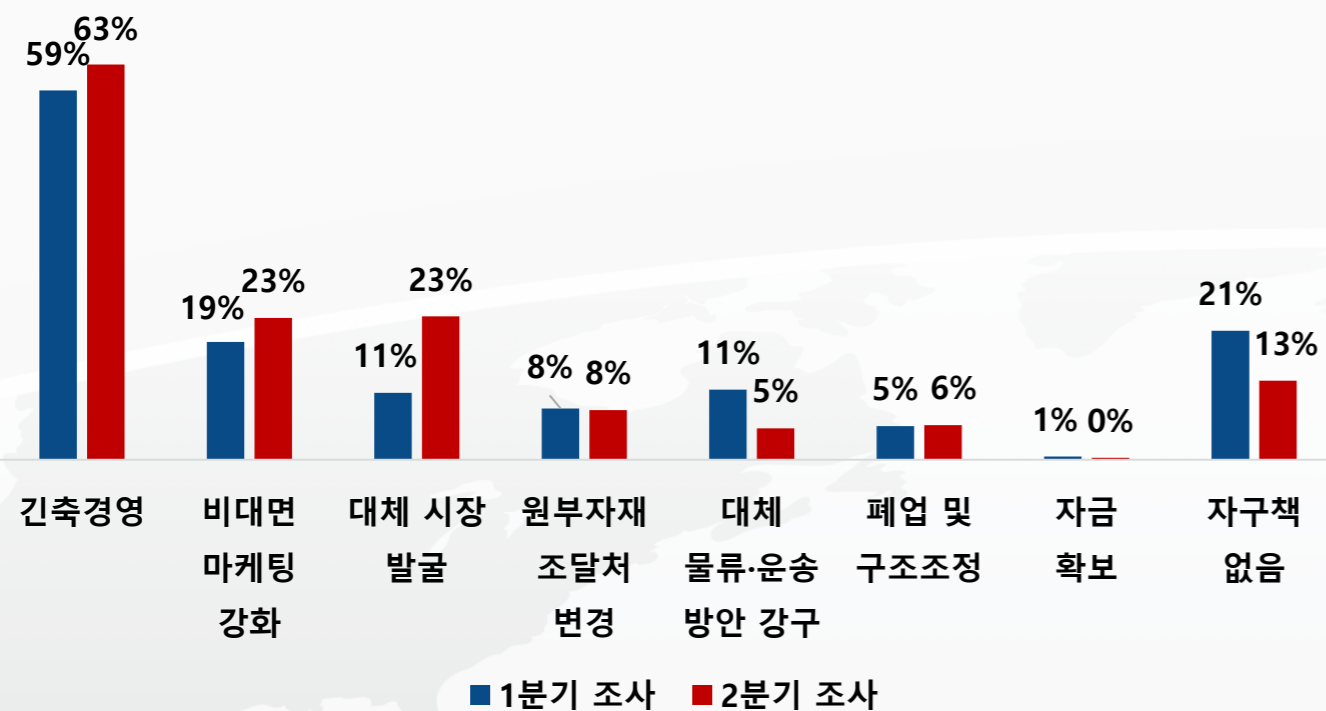
■ 과반 이상의 기업이 “긴축 경영”(63.5%)으로 대응 중

- 추가적으로 대체 수출시장 발굴(23.0%) 및 비대면 마케팅 강화(22.8%) 등으로 대응
-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도 불구하고, 12.7%에 달하는 기업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적절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, 1분기 대비 비중은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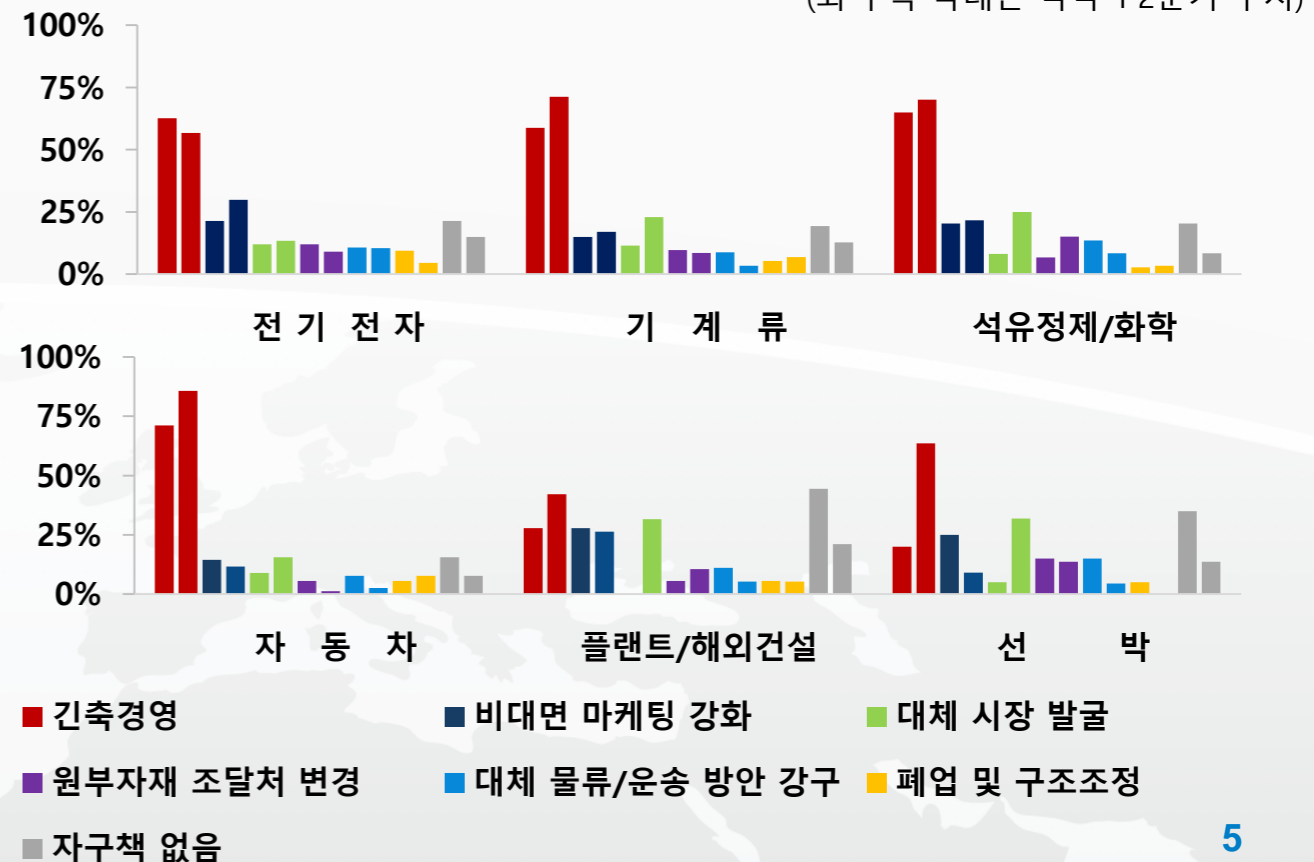
* “자구책 없음” 응답률(전산업 평균, %) : (1분기) 20.7 → (2분기) 12.7

- 전기전자의 경우, 비용 절감보다 비대면 마케팅 강화를 통해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한편, 선박·석유정제/화학·플랜트/해외건설 등의 경우, 대체시장 발굴 노력이 크게 증가

코로나19 피해 자구책 (복수 응답)



산업별 코로나19 피해 자구책 (복수 응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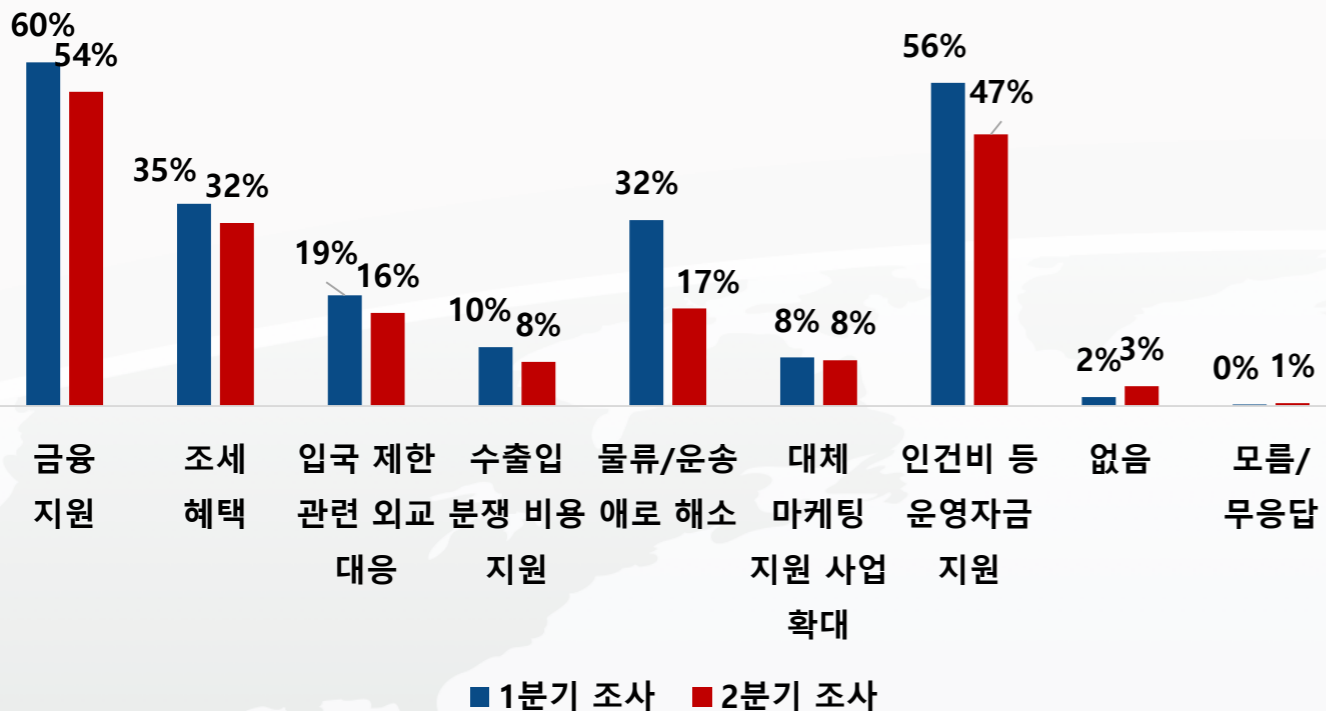


코로나19 관련 시급한 정부 지원정책

■ “금융지원” (54.5%) 및 “운영자금 지원” (47.1%)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

-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, 특히 “물류/운송 애로 해소” 응답 비중이 1분기 대비 크게 감소 (32.2% → 16.9%)
- 전기전자 업종은 “물류/운송 애로 해소” 응답은 항공화물 공급 증가 등으로 1분기 대비 크게 감소(48.0%→17.9%) 하는 한편, 플랜트/해외건설 업종에서는 입국 제한 등으로 인해 “수출입 분쟁을 위한 비용 지원” 응답이 1분기 대비 상당 폭 증가 (5.6%→26.3%)

코로나19 관련 시급 정부 지원정책 (복수 응답)



산업별 시급 정부 지원정책 (복수 응답)

(좌·우측 막대는 각각 1·2분기 수치)

